

사설

대학인이 나서자
한글 지키기

한글이 재흥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20일 한글과 컴퓨터사는 한글지키키운동본부의 인수안을 전격적으로 수용, 한글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밝혔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한글 개발을 포기한다는 발표 이후, 한글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유·무형적 영향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회적 손실비용만도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국내의 각급 학교, 기업, 공공기관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일대 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글은 국내에서 개발된 워드프로에서 프로그램으로 기술적으로 한글 교유의 초·중·고등의 결합원리가 이론적으로 잘 반영된 논리회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세계의 워드프로에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S사의 워드프로에서보다 한

글에 관한 한 양질의 프로그램이고 국내시장을 못 지키는 국민적 소프트웨어이다.

대학은 한글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러면서도 대학은 이번 사태에 그저 수수방관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대학은 이제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남에게 얻어 먹기만하고 베풀 줄 모르는 것은 대학인의 자세가 아니다. 대학인도 스스로 자성을 하자. 실제로 교수·직원·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한글 버전을 복제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복제는 일종의 범죄이다. 대학이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기의 지적 소유권은 주장하면서도 남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없애 버려버리는 행위로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불법복제 방지운동을 대학에서 전개하여 정품 사용율을 20%에서 80%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자.

한글과 컴퓨터사도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를 아

끼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서 인터넷, 호환기능 등을 보완하여 진정한 경쟁력을 지닌 국제적 버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마다 8.15버전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니 기대해 보기로 한다. 정부의 정책도 한글에 대하여 좀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눈이 어두어 수수방관한 것은 정부의 문화정책 자체를 의심케 한다. 한글의 문제는 한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닌 언어의 문제이고 민족의 문제였다.

아직도 한글을 지켜 내려면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내야 한다. 한글 지키기는 지금이 시작이다. 이 노력을 대학인이 맡아야 한다. 한글이 우리 기술과 문화의 지키키로서 세계적으로 뽐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정신적으로 돕자. 이제 대학인이 앞장 설 때다.

평화만경

노회령



시론

양심수 석방서약서 무엇이 문제인가

사상전향제의 또다른 변이 '준법서약제'

임영화
〈민변 사무차장〉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감대중 대통령에게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8.15사면'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면서 특히 양심수에 대해서는 종래의 형식적 기준을 탈피하여 과감한 관용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 온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최소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사상전향제도는 1993년 일제총독부가 '사법당국 통령'을 제정하면서 당시 사상범들에게 '일본천황에 대한 충성서약'을 서방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유래되었다. 당시 사상범인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치안유지법, 1938년도의 사상범보호관찰제도, 1941년도의 예방구금제도 등에 의해 수감되거나 탄압을 받아 왔다.

그러다가 광복 후 사회안전법 실시로 그 잔재가 그대로 남게되고 1989년 폐지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입법되면서 존치되어 왔고 현재는 수용자 분류처우규칙, 좌익수형자 사상전향공작업무 처리요강령,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등 수행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시기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스스로 인권 대통령으로 자처하고, 실제로 그동안 대표적인 인권침해 피해자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후 1998년 3월 13일 첫 사면에서 약 500여명의 양심수 중 불과 74명만을 석방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였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8.15특사'를 통해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양심수의 과감한 석방의사를 밝힌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준법서약제'는 여전히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사상전향제도의 또 다른

변이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물론 국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최소한 '국법집행을 준법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준법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풀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의 그러한 인식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보수기득권 세력의 논치를 보기 위한 공색한 변명일 뿐이다.

'준법서약 거부'는 '준법 거부'가 아니라 '서약 거부'의 문제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하면 법집행으로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준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살인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이치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을 얻거나 행동으로 표명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자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사상전향제도나 도입하겠다는 준법서약제가 모두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준법서약제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제까지 일반 수형자들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해서만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석방 심사시 수형자의 신원관계, 범죄관계, 보호관계 기타 석방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왔다. 어차피 국법집행유지를 고려해야만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가석방 대상자에게 범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심사관자의 자제심사결과로써 해야지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준법서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결론 내리는 것이다. 준법서약서 작성 유무를 석방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가석방 심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위험부담을 가석방대상자에게 안 일하게 떠넘기려는 정치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IMF로 인한 경제난과 그로 인한 국민의생활한 실태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개혁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숙명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과당기에 처해 있다. 사상전향제 폐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도 보여진다.

그렇다면 차체에 정부는,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양심수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준법서약을 거부하여 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당착의 결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권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세력을 포용함으로써 국민의 화합과 통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준법서약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양심수 석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시봉

태지 컴백 그려나...

'You Must Come Back Home' 태지. 그가 돌아왔다. 지난 96년 '팬들의 가슴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다는 저희의 다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은퇴 이유를 밝힌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긴 공백을 무너뜨리고 얼굴 없는 컴백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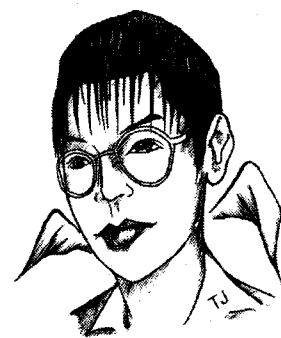
'서태지 신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일까. 그의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많은 언론들의 기사와 컴퓨터 PC통신의 예약주문, 그리고 '서태지'를 주제로 토론방이 개설돼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많은 금강중에서 지난 7월 7일 서태지의 솔로앨범 'Take Two'가 대중들과 팬들에게 공개(?)되자 이번에는 그의 음악 완성도나 대중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지만 92년도 '난 알아요'의 앨범으로 음반시장을 장악한 이후로 서태지는 '90년대 신세대 문화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이후 '히어거', '발해를 꿈꾸며', 'Come Back Home'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인 노래와 패션으로 그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그런 그였기에 솔로앨범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여파를 불러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볼 점은 IMF 한파 속에 서태지의 솔로앨범을 위해 무려 20여만원이란 돈을 들인 대기업의 상업논리와 서태지 컴백이

유의 불충분에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0대 문화의 중요한 기호였던 서태지가 대기업의 상업적 술수에 이용됐든,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앨범이든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은퇴를 반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가수들은 몇 년전부터 몇몇 있어 왔다.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한 그들의 음악이 성공하면서 '은퇴했던 가수'라는 이미지는 잊혀져가는 것이 우리의 풍속도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서태지의 경우 다른 가수들과 달리 '우상'으로까지 추대되었기에 자신의 작품이나 행동에 더욱더 책임을 져야 한다. 한때 앨범 한 장을 국내에 던져놓고, 자신은 다시는 음악을 않겠다는 발언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방향성 논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평범한' 젊은이로 살고 싶다는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김동혁 문화부장



▲ YSIP권 당시 국민대화합의 명목아래 진행된 8·15특별사면, 그러나 과거정권 인사와 재벌총수 등이 대거 포함된 명목뿐인 사면조치에 양심수 가족들의 원망은 높아만 간다

특별강좌 모집안내

산업정보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부설 부동산 특별강좌

부동산시장의 금융 및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활성화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좌우된다.

IMF 체제가 물고기는 부동산경제에 대한 영향은 심각하였습니다. 부동산경제는 눈에 보이기 침체되었고, 그에 따른 부동산 거래도 현저하게 위축되었으며, 부동산 금융분야에 있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의 곤란으로 금융 경색 및 도산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IMF 위기 극복에 긴요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최근에는 각종 부동산경제 활성화대책, 외국 자본유치 부동산 시장개방,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완화 등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부동산경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이것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부족하여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고있으나 외국인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경매 취득을 일선하는 전문가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점차 외환보유고 증가 등에 의해 경제재난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이자율의 하락 등에 의해 부동산 경제도 회복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IMF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동시에 그 위기 극복도 부동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IMF 체제하에서도, 또 IMF 체제 극복이후에도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원서접수: 1998년 7월 23일~30일
- 장 소: 산업정보대학원 교학부
- 선발일시: 7월 31일 오전 11시
- 선발장소: 산업정보대학원 교학부
- 대 상: 누구나
- 수 강 료: 부동산 경제 컨설팅 특별과정: 6개월 100만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특별과정: 2개월 60만원
- 모집인원: 00명

기 간	강의명	세부강좌
1월 차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개론 부동산금융학 부동산정책(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2월 차	공인중개사 이론 과정 I	민법 공법
3월 차	공인중개사 이론 과정 II	중개업법령 공시법 세법
4월 차	공인중개사 연습 과정 I	부동산학 개론 문제연습 민법 문제연습 공시법 문제연습 공법 연습문제
5월 차	공인중개사 연습 과정 II	중개업법령 연습문제 세법 연습문제
6월 차	공인중개사 정리 과정	각 과목 실전문제고사 및 해설

* 교과과정 중에는 대학원 공통과목인 컴퓨터 처리 실습능력 배양과 기초이론 포함

● 본 과정의 특징 및 특점 ●

- 경제대학과 경영대학의 수료증 수여
- 경제대학과 경영대학의 졸업증 수여
- 경제대학원 학생회비 지원
- 본 대학과 연구시설과 도서관 및 자료이용
- 본 과정 수료자에 석사과정 입학 특혜(소정학점 인정)
- 본 과정 수료자에 대해 대학원 입학 특혜(소정학점 인정)

수월	요일	시간	내 용
1주	월요일	1교시	개강식(오리엔테이션)
	화요일	2교시	특강(대의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 양성)
	수요일	1교시	특강(성인교육의 취업유망 및 향후계획)
	목요일	2교시	경제의 경제학 및 기초이론
2주	월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1(경제법원의 지식)
	화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2(경제법원의 지식)
	수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3(경제법원의 지식)
	목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4(경제법원의 지식)
3주	월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5(경제법원의 지식)
	화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6(경제법원의 지식)
	수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7(경제법원의 지식)
	목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8(경제법원의 지식)
4주	월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9(경제법원의 지식)
	화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10(경제법원의 지식)
	수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11(경제법원의 지식)
	목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12(경제법원의 지식)
5주	월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13(경제법원의 지식)
	화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14(경제법원의 지식)
	수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15(경제법원의 지식)
	목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16(경제법원의 지식)
6주	월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17(경제법원의 지식)
	화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18(경제법원의 지식)
	수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19(경제법원의 지식)
	목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20(경제법원의 지식)
7주	월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21(경제법원의 지식)
	화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22(경제법원의 지식)
	수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23(경제법원의 지식)
	목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24(경제법원의 지식)
8주	월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25(경제법원의 지식)
	화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26(경제법원의 지식)
	수요일	1교시	경제법원법규 I-27(경제법원의 지식)
	목요일	2교시	경제법원법규 I-28(경제법원의 지식)

● 본 과정의 특징 및 특점 ●

- 소정학점 인정에 수료증 수여
- 수료자들의 경제학위를 위한 계속적 지도
- 경제대학원 학생회비 지원
- 본 대학과 연구시설과 도서관 및 자료이용
- 본 과정 수료자에 석사과정 입학 특혜(소정학점 인정)
- 본 과정 수료자에 대해 대학원 입학 특혜(소정학점 인정)
- 해외유학선정실 교육 및 수료증 기증부여

학사업무(변경) 안내

1. 1998년 8월 13일부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사업무를 단과대학 교무실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가. 단과대학 업무안내 내용(수원캠퍼스만 해당)
- 1) 일반휴학
- 2) 군인대휴학
- 3) 복학
- 4) 편입학자 학점인정
- 5) 학점제수강
- 6) 주소정정
- 7) 졸업관리
- 8) 수업입금(조회 및 출력)

나. 재등록조건 일반휴학은 개강후 6주에서 5주로 변경되었음 (개강후 5주이후에 일반휴학을 할시에는 재등록 조건임)

2. 재학생 등록기간: 98. 8. 13(화) ~ 98. 8. 25(화)
3. 복학기간: 98. 8. 20(목)부터

수원캠퍼스 교무처장

논문발표

학 과	과정 성 명	논문제목	날 짜	장 소
경영학	석사	경제적 부가치(EVA)를 이용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연구	1998. 3.30	정경대 4층 세미나실
경영학	석사	기업의 인터넷 활용과 경영전략-구내 500대 기업의 웹 사용 현황 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모델	3.30	정경대 4층 세미나실
경영학	석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도입의 핵심성공요인 분석	3.30	정경대 4층 세미나실
경영학	석사	대학교육자 학생들의 태도와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3.30	정경대 4층 세미나실
법 학	석사	WTO 체제하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합법성	3.31	법대강의실 403호
유전학	석사	대장암에서 재조합 원두 효소 Fructose-1,6-Bisphosphatase	3.31	6층관 213호
체육학	석사	사범체 육림의 심상과 변혁	3.30	체대2층 세미나실

대학원